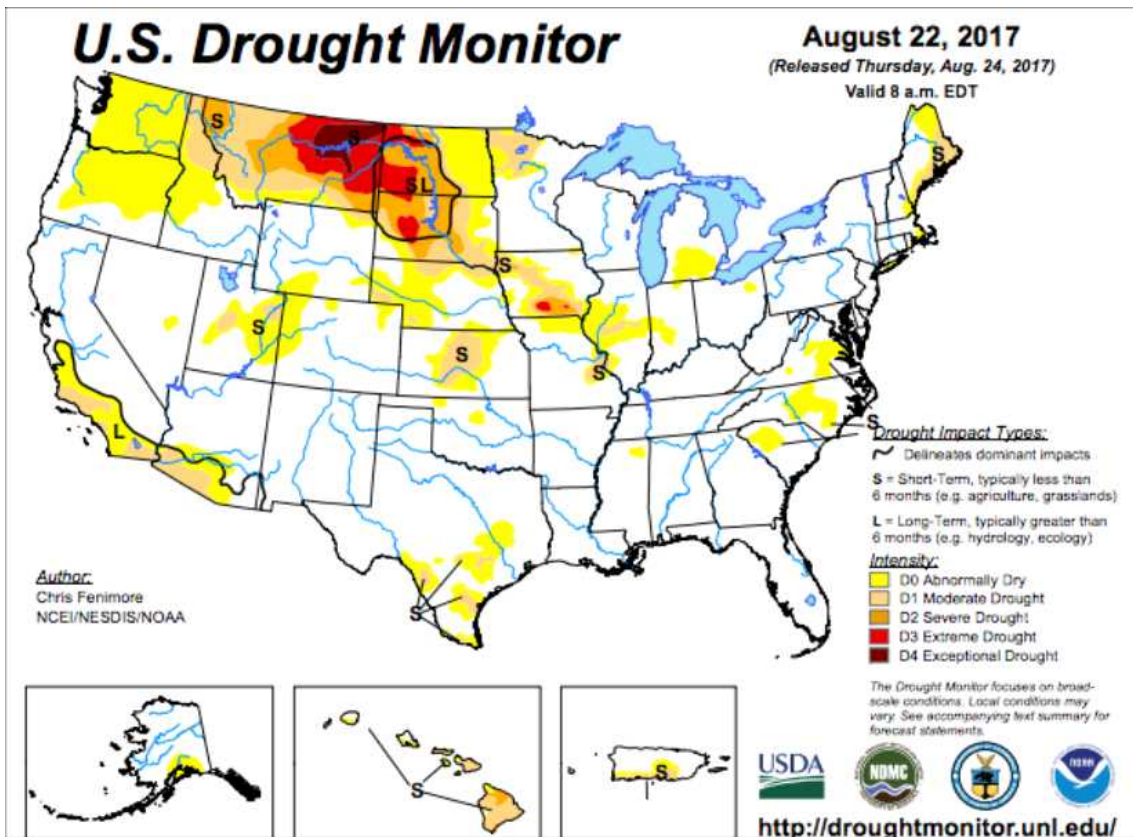


9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6)

□ 미국 기후 현황(8/27~9/6)

텍사스 남동부와 루이지애나 남서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허리케인 Harvey의 영향으로 Huston, Beaumont-Port Arthur에서는 지난주에 주 초반까지 20~50인치 내외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이 이동하고 난 뒤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수위가 낮아졌고, 복구작업이 시작되었다. 허리케인이 소멸한 후 남은 비구름은 오하이오 중부 지역으로 이동했고, 알칸사스 동부에서부터 켄터키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서양 연안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주 초반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허리케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서부, 중부, 북동부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지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 지역은 7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뺄 10°F 정도 높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와 남부 평원, 걸프만 연안 서부 및 중서부 저지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8/28~9/3)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F 이상 높은 날도 있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정도 낮았다. 텍사스 동부와 루이지애나 서부에서는 허리케인 Harvey의 영향으로 주 초반에 많은 비가 내렸다. 허리케인이 소멸하고 난 후 남은 비구름은 미시시피강 하류와 오하이오 일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들 지역에 비를 뿌렸다. 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누적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세계 기후 현황(8/27~9/2)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비가 내리면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 등이 지연되었고, 겨울작물의 파종작업도 연기되었다. 반면, 독일 등에서는 여름동안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부 및 북부 일대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발칸반도 및 Danube 강 인근의 세르비아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리스에서는 2~15mm내외의 비가 내렸고, 면화의 수확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겨울 및 파종작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지만, 여름 동안 더위에 시달렸던 옥수수, 해바라기 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1~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 등에서도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몰도바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러시아 남동부의 Volga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 일대와 양쯔강 주변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15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왔다. 양쯔강 서부의 Sichuan, Chongqing, Hubei 등에서는 지난 여름동안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벼 재배지 등에서는 저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 남동부에서도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및 일본 등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호주: 서호주 및 남호주 일대에서는 3~12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최근 몇차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지난 5월과 6월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확량은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의 수확량 전망은 서호주와 남호주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비가 조금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고, 지역에



따라서 밤 동안 기온이 0°C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면서 수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 남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남부에서는 따뜻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남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동부의 Santa Fe, Entre Rio, Corrientes 등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중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고,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6°C까지 높은 날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면화 등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에서는 해바라기의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 서부 곳곳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 비는 이후 북부의 Parana 남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16%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95%였다. 남동부의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도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Mato Grosso, Bahia 등에서는 면화 수확작업이 진행 중인데, Mato Grosso의 경우 9월 1일 기준 수확률이 84%를 기록했다. Mato Grosso 서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